

# 민주 원내대표 '단일화' 최대 변수

## 원혜영-김부겸 '수도권 지지' 25일까지 성사 이강래-홍재형 '호남-충청 연대' 공감대 형성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경선(2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단일화가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4명의 후보는 빠르게 이번 주 내에 단일화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에 따라 후보 간 물밑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기반이 겹치는 원혜영-김부겸 의원 간 단일화 논의는 성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해진다. 두 의원은 일단 오는 25일까지는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다. 특히, 옛 열린우리당 출신의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립지대' 의원 7~8명이 매개 역할을 자임, 두 주자 간 단일화 성사를 위해 물밑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이강래 의원과 충북의 홍재형 의원도 '호남-충청 연대'를 기치로 한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몇 차례 비공개 접촉을 갖고 의사타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의 현안에 있어 충청권과 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홍 의원 측이 비(非) 수도권인 이 의원과 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홍' 단일화가 1차 투표 후 결선투표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주자 측은 '원-김' 단일화 추진과 관련, "지지가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시너지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원숙한 협상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대(對)원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감옥에 두 번 갇혔다고 해서 네 번 쫓겨났다. 어떻게 선명하지 않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부겸 의원은 95년 꼬마민주당 시절 당시 정치입문을 준비중이던 홍 의원 영입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뒤 오랜 친분을 다져온 만큼 능숙한 '지피자기' 전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강래 의원은 "16대 때 당에서 홍 의원과 TV 토론에서 일대일로 워낙 많이 맞붙어 성격이나 스타일, 장단점을 잘 안다"며 "17대 때 환노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인간적 신뢰도 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충북 간 대표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청주를 방문, 충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재형 의원 등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보궐선거 원인 제공, 한나라 비판하더라도...

## 민주당 공천 '이중잣대' 논란

통합민주당의 6·4 재보궐선거 광주시의원(남구 1 선거구)·광주 남구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6·4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광주시 시의원(남구 1 선거구) 후보로 김선문 전 남구의회의원을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통합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구 민주당은 지난해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김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 된 청소용역업체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역사 1구간 청소 및 방역 용역' 입찰 때 제출한 '입찰 서류 및 적격심사사료 위·변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자 공천을 철회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측은 당시 업체 측이 입찰 실적과 계약이행보증증금, 건축물대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 9천178만원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납부하지 않자 광주지법에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소송까지 냈다. 광주지법은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업체 측에 1천1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공천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 기초의원 선거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또다시 후보를 선출한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출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민주당은 당시 현직 지방의원이 중도 사퇴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도미노' 선거가 반복되고 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민과의 약속은 공개하고, 국민의 혈세는 안중에 없는 분들에게 표를 주면 안된다"고 논평을 냈었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정책부장은 "한나라당 행위에 대해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엄치 없는 행동 아니냐"면서 "또다시 일관성 없는 공천을 하니 같은 지방자치의 근거를 흔들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선문 전 의원은 "해당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지난 2002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 운영을 넘긴 상태라 개인적으로 상관없는 문제"라며 "당시 당에서 진상 조사를 했지만 무관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다시 부당했고 이번 심사에서 동일한 결과가 반영돼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률기자 dok2000@kwangju.co.kr

## “F1, 특별법 제정 국책사업으로 지원해야”

### '관광산업 육성...' 토론회 참석 김태량 국회 사무총장

“관광산업은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한 지원이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일 국회법제실·전남도 공동으로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관광산업육성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량(66) 국회 사무총장은 “F1과 같은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F1 대회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남은 다양한 관광자원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0 F1국제자동차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전남은 관광산업을 크게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남은 여행으로서 유형문화재가 풍부하고, 뛰어난 맛의 남도음식, 유·무형 관광자원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런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세계박람회나 F1과 같은 관광산업과 접목해 차별성있고 품격있는 고장으로 탈바꿈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국회 해태상 밑에 문헌 와인 72병 건립 기증한 해태측서 묻어...2075년 개봉키로

국회의사당 앞에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2개의 해태상 아래에 국산와인 72병이 묻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됐다. 이 해태상은 지난 1975년 국회의사당이 서울 도심의 태평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할 당시 화기(火氣)를 억누르기 위해 세운 것으로, 당시 해태제과 측에서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3천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국회 관계자는 “해태 30년사”를 보면, 땅을 파고 그 안을 석회로 봉한 후 백포도주를 한 병 한 병씩 석회로 감싸 특별 제조한 항아리에 넣었다고 돼 있다”며 “개봉일은 100년 후인 2075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DJ, 경선 개입 절대 없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당선자는 20일 통합민주당 당권 경쟁을 둘러싼 '김심(金心·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이번 대표 경선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 대표경선에 뜻을 둔 분들이 동교동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

### 현장과 시각

## 떡과 어머니



이종태 경제부장

광우병 최고기 논란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을 즈음 강진군에서 열린 '한국농업의 2·3차 산업화 전망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이 눈길을 끌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성훈 전 농업부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한·미FTA에 이르기까지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쌀시장 개방에 이어 최고기 전면개방, 한·미FTA 시리즈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광야에서 방기뿔겨져 떨고 있다'면서 위기의 농업·농촌이 살아남으려면 자연(地緣)산업을 육성하고, 농촌 특유의 어머니(Amenity·친근함)를 살려 도농(都農)간 지속적인 교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장소나 기구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지만,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업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성을 주는 요소로 이해된다. 최근 관광수요에서 이 어머니의 소중함을 일깨울 만한 의미있는 만남이 있었다. '녹토미'라는 희귀한 청정찬쌀을 생산하는 송정농협과 이 녹토미로 인절미 등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시투연이 개발유기를 높기 위해 관광수와 손을 맞잡은 것이다. 녹토미는 라이스·클로로필 등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벼보다 25% 높은 것으로 검증돼 혈액의 황체형성과 소화액 분비 등을 도와 당뇨수치를 낮춰주고, 어린이들의 성장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녹토미는 현재 7ha에서 연간 2의 수확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김장시 관광수요개발은 '녹토미 인절미를 관광수 대표상품으로 만들어 녹토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향후 재배면적을 늘리고, 떡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기업매출 제고는 물론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고유의 음식인 떡을 매개로 해 공급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간 교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제 바로 어머니를 이용한 '농촌 구하기'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굳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초가를 올리고, 호수를 파는 '부자유서러운 어머니'보다 백배, 천배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송정농협과 시투연은 쌀과 떡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에만 그칠 게 아니라 송정농협은 녹토미 재배·수확·수확·공과정을, 시투연은 떡을 만드는 과정을 도시민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김 전 장관의 '어머니'론을 긍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jilee@kwangju.co.kr

### 보람상조와 함께 할 새가족을 모십니다.

**새가족 모집**

1.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건강한 분  
2. 학력 고졸 이상  
3. 전업주부 또는 전업주부 희망  
4.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보람상조 특장점**

1. 보람상조는 30년째 국민 사랑을 받는 기업입니다.  
2. 보람상조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입니다.  
3. 보람상조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입니다.

☎ 보람상조 남광주 지점 인사팀 ☎ 010-9566-8114

### 일중한의원

고향학인 김민기 원장

☎ 062-676-1075

**진료내과**

1. 내과

2. 소화기내과

3. 순창내과

**진료과목**

1. 내과

2. 소화기내과

3. 순창내과

☎ 062-676-1075